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Qualitative Study on the Causes of Being Single and Gender Difference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사 김경원

교수 김태현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yung-won Kim

Professor : Tae-hyun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ading causes of choosing to be single through in-depth interview. In the study I applied Hermeneutic Phenolog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experiences and values of the subjects.

I analyzed the leading causes that have drawn them to stay single, and the gender differences on the two subjects. The causes of being single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ersonal factors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were standard value by birth order, expectation from parents,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y, and lack of interest toward the opposite sex. The socio-environmental factors were achievement at work, and ease of living.

Staying single is not a special way of life. As found in the study, the cause of being single is not determined at birth, but rather results from being raised to be single in a way. The main cause of being single was basically based o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were raised including parents' attitudes, economic situation, and sibling order.

We are living in a society of diversity. Being and staying single is a personal choice, that is one aspect of

diversity. Therefore we need to widen our vision to accept the single life as one of the normal life styles and one for special treatment. We have to approve of other people's life styles as long as of causes no harm for the development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family itself and having family. Finally I think we need to develop various family programs targeted at a diverse range of families rather than only at the normal family.

주제어(Key Words): 독신생활 동기요인(causes of being single), 독신경험(experiences single), 성차(gender differences)

1.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융통성이 생기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세부기능이 확대 혹은 축소됨에 따라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가져오면서 신·구세대의 가족가치관의 충돌이 돌출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양상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가족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 4.5명에서 1998년 1.5명으로 줄었으며, 2001년에는 1.30명, 2002년 1.17명으로 2001년에 비해 0.13명 감소하였다. 가족의 크기에 있어서도 1975년 평균 가족수가 5.0명이었던 것이 2000년 평균 3.1명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0). 이는 가족세대가 단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변화하여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가치 척도도 남녀평등, 자기실현, 자기개방 및 자기 탐구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또한 직업의 전문화에 따른 직업의식의 강화, 여성 취업률의 증가, 여성의 생활양식 영역의 확장, 결혼 기피 등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Kirmelman, 1985). 이러한 변화는 가족주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유형에서도 다양화

를 보이면서 맞벌이 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대안가족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대안가족의 유형은 독신과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두드러진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이 독신이다. 이는 가족가치관의 변화, 특히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1999)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3.6%,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은 39.9%,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28.9%로 남자(18.4%)보다 높다. 특히 20대 여성은 42%가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간주한다(조선일보, 2000. 12. 28).

오늘날 결혼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독신을 결혼의 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지난 1940년에는 혼자 사는 독신가구가 8% 미만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무려 2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 5. 1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2000) 결과에 따르면 독신가구가 전체가구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독신자는 주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사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학업·취업 준비자나 고학력의 30·40대 전문직 종사자 등 독신을 생활의 한 스타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독신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반발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경제적 자립, 자의식 확대, 이혼 증가 등이 이유일 수 있지만, 크게 보

면 복잡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현대 생활에서 점점 “나”라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정보다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결혼보다 개인의 ‘행복’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홀로가 좋다’(주간조선, 2002. 1. 10)는 개인주의적, 편리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사고(의식)에서 비롯한 새로운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新)가족풍속도라 할 수 있는 ‘독신’을 두고 ‘자유를 택한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는데는 독신의 가장 큰 매력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인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뜻한다. 독신들에게 자유는 곧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독신이 누리는 자유에는 외로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정해진 틀과 순서에 따라 자신의 삶이 끼워 맞춰지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주변의 눈이나 나이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결혼은 사양한다. 물론 혼자 산다는 것이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통로는 항상 오픈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장현숙, 2002).

독신 남녀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 결혼에 대한 의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자녀를 낳아서 결혼까지 시키는데는 양육비·교육비 등 합해서 최소한 3~4억 정도 든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약조건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평생 가족의 노예가 되어야 할 남성들에게 독신생활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반면 혼자 사는데 길이 잘 들여진 여성들은 훨씬 그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김애순, 2001).

그러나 결혼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다. 그만큼 독신생활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Olson & DeFrain, 1994). 또한 독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대체로 과장되어 있으며, 편견적이며, 비하적인 경향이다. 독신자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사람이며,

결혼하기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미성숙하거나 또는 변덕스럽다(Cargan & Melko, 1982), 독신자들은 불행하고, 의기소침하다(Knox, 1985), 독신자는 부모, 가족에게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유아적인 존재이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이 결혼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옥귀주, 1999), 부모와 가족관계 인식에 있어 실제적 독신자와 미혼자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자주 보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Cargan & Melko, 1982)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회적 추세에 따라 독신을 가족형태의 한 대안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 독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박충선, 2002; 옥귀주, 1999), 원가족과의 관계(김순옥, 2002), 심리적 성향(장현숙, 2002), 경제활동(심영, 2002), 여가활동(윤소영, 2002)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미혼 독신자들이 자신의 생활 공개를 꺼려하거나 설문지 상에서는 왜곡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심층적 면접 방법을 통하여 독신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남녀독신자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독신으로 유인하는 동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독신생활의 남녀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독신 유인 관점

1) 사회교환론적 관점

교환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은 보상을 찾고 비용을 피하는 과정으로 본다. 물론 교환이론가들은 사람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비용'을 의식하는 경향이며, 그래서 자신에게 보상을 많이 주는 행동이나 고통을 적게 하고 즐거운 경험을 주는 행동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생각한다(Olson & DeFrain, 1994).

사회교환이론의 한 주요 개념이 호혜성(reciprocity)이다. 호혜성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행위가 동등한 또는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이다(Shenan & Kammeyer, 1997). 여기에서 교환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이를테면 에너지, 돈, 지위, 지능, 미모, 젊음, 노력, 재능, 명예, 또는 애정 등 유형·무형의 자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호혜성의 개념은 사회관계에서 주요 원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호혜성의 개념이 흔들릴 때 즉 자신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적다고 느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긴장되고, 갈등이 일어나며, 관계가 중단되기도 한다.

사회교환 이론은 사회적 관계가 왜 지속하고, 왜 끝나는가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어떤 행동이 취해지며, 어떤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 배우자 선택시에도 그들이 지닌 물질적·비물질적 제반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신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하여 경제학자 Becker(1981)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결혼시장에서의 분류적인 짝짓기(Assortative Mating)로 설명하고 있다. 효율적인 결혼시장(Efficient Marriage Market)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의 가격이 정해지며 그 책정된 가격은 다양한 질의 남성과 여성참가들을 분류하여 짝을 짓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효율적인 결혼시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분류의 짝짓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우수한 남성과 매우 우수한 여성, 매우 열등한 남성과 매우 열등한 여성의 경향으로 짝을 이루게 된다. 매우 우수한 남성과 여성의 짝짓

기는 더욱 나은 짝을 찾아 대체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결혼시장 참가자의 성적 비율과 질적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한 우수한 남성과 다수의 우수한 여성이 짝을 이룰 수도 있으며, 독신이 발생할 수도 있다(박주희, 2003).

이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 현재의 생활이 주는 만족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경우에만 결혼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독신의 경우 장점은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유에 대한 보상으로 결혼의 장점인 친밀감 형성과 재산산이 주는 만족도가 클 때 결혼을 선택할 것이며, 현재 대인·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만족하고 있어서 친밀감에 대한 더 큰 욕구나 자녀 생산에 대한 욕구가 없을 경우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2) 자아실현 욕구 관점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은 매우 광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매슬로(Maslow, A. H., 1965, 1970)가 말하는 자아실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본질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실현이란 질병, 신경증, 정신병 또는 기본적인 인간 능력의 상실 혹은 감퇴 등이 가장 적게 존재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는 인간 욕구를 차원이 다른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그것을 욕구의 계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욕구를 정리하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각자의 다양한 삶의 목적에 따른 자아실현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 과거보다 더 많은 정신적, 사회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림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은 물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이것은 그들이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며,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녀의 욕구 중에서 다른 기본적인 욕구에 비해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짐을 고려할 때 결혼을 선택하기보다 독신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독신의 증가 요인

1) 사회적 배경 요인

독신가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첫째 요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이다. 통계청(2003)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구에서 독신가구의 구성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 4.80%, 1985년에는 6.91%, 1990년에는 9.0%, 1995년에는 12.7%였으며, 2000년에는 15.5%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가구수 6가구당 1가구가 1인 독신가구라는 의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비례하여 미혼 독신가구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인 유대관계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때로는 오히려 가족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이와 동시에 물질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의 개발,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 및 외식산업, 그밖에 가사노동을 편리하게 대행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이승원 외 2001).

Macklin(1980)은 미혼 독신자의 사회적 배경에 의한 증가 요인을 첫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와 생활양식 영역의 확장, 여성 고용 확대, 둘째,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 셋째, 독신이 보다 나은 사회생활과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로 보았다.

윤영호(1994)도 인생에 대한 가치 척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취업률 증가, 결혼 적령기의 변화, 남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점, 독신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사회 여건의 형성, 독신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중매혼보다 연애혼이 보편화되는 데서 오는 결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준중으로 인한 사회 변화로 미혼 독신자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독신증가의 두번째 요인은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취업률의 증가로 인한 경제력 향상이 가져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독신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예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전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0년 553명(4.0%), 2001년 741명(4.8%), 2002년 872명(5.5%)등으로 6급 이하 여성공무원과 비슷한 추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문화일보, 2003).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에는 6.5%, 2004년에는 8.7%, 2006년에는 1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연합뉴스, 2002). 이러한 정책은 여성이 승진을 목표로 삼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취업 확대는 오늘날 독신이 늘어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취업의 확대가 독신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적 배경 요인

가족이나 주변환경의 요인으로서, 남녀 교제의 통제나 이성을 접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결혼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한 경우, 부모의 지나친 결혼 압력, 부모의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을 보면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느끼면서 이성 부모에 대한 미움이나 두려움의 감정으로 왜곡된 결혼관을 가지고 성장한 경우(Jorgensen, 1986)가 있다.

Giligan과 Lyons(1982)는 독신생활을 선택한 사람

들은 결혼에 대해 그들의 가족이나 집안으로부터 결혼의 권유나 압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며, Klener와 Stein(1981)도 미혼 독신자들은 주위의 권유나 압력은 결혼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으며 현재 가족이나 타인에 의한 결혼 압력은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옥귀주, 1999. 재인용).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결혼에 대한 규범, 태도, 행위 등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결혼을 향한 부모들의 압력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독신의 배척요인으로 작용하던 '결혼 지향의 문화적 규범'의 완화와 '부모의 압력'의 완화는 물론,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결정에 대한 부모 및 친지들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결혼 결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되었고, 결혼 시기 자체를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었다면, 이젠 일정한 경제력이 확보될 경우에 독립이 가능해 굳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탓(합인회, 2003)도 미혼과 독신을 선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결과 개인의 심리적인 배경 요인인 가족, 주변환경의 원인이 독신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부모의 결혼 압력 여부, 결혼에 대한 흥미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여성의 경우 직장 생활에서 이성 동료에게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가지거나, 성에 대해 지나친 결벽증이 있거나 자존심이 너무 높아 주변 시선에 너무 민감하고, 배우자감을 고르는 기준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높아서 오는 경우나 결혼 후 배우자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원인이 된다(Lasswell, 1987).

또 이성간의 교제 후에 오는 실연이나 충격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실수나 성에 대한 공포로 생기는 정신적 고통(최신덕, 1983; 이정우 외, 1996). 결혼 후 배우자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불안과 가족이 구성됨으로서 빚어지는 심리적인 중

압감에서 오는 두려움, 결혼제도에서의 가족의 확대로 인한 여러 문제들로 해서 독신을 선택할 수 있다(Rice, 1990; Tucker, 1992).

이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독신생활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연애 경험이 현재 독신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행복은 가족 안에서 가족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족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었다.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 규범은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전옥실 재인용, 2000).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란 틀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신의 행복은 곧 자기 자신의 자아성취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족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가치관이 가족이나 사회공동체보다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체계가 도입되면서 사회의 경제활동이 개인을 단위로 하는 체계로 되어감으로 개인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하여 직업과 일의 추구, 자아 실현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는 풍조와 여권 운동의 영향에 의한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향상되고 결혼을 기피함으로써 미혼 독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여성과 현실 연구회, 1995).

실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의 기본단위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가족 내에서 충족되었던 인생의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개인의 행복과 생활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우선시되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으로 인해 독신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기준과 직업의 성취욕은 현재 독신생활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방법

질적인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심층면접(open-ended interviews), 직접관찰(direct observation), 문서활용(written documents)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Pelto & Pelto, 1994).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세 가지 방법 중 개방적인 심층면접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질적인 방법이 사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독신들이 결혼이 아닌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양적인 연구들이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이 갖는 경험들을 미리 규정된 반응의 범주에 맞추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사실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개인이 갖는 가치관과 의식에 따라 독신을 유지하는 이유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심층면접을 통해 개개인의 인식과 느낌, 지식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

둘째, 본 연구는 독신들이 경험한 원가족과의 관계와 환경의 영향으로 자발적-일시적 혹은 비자발적-일시적인 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다양화와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인 인식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의 다양화를 경험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독신자의 증가가 현저하다. 독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형태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대한 시각은 너그로우나 중년에 접어드는 35세 이상의 독신들에게는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팽배한 실정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에 익숙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연구대상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 분야에 대한 토착적인 연구가 빈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질적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 심층면접 방법을 통하여 면접에 참가한 개개인의 경험과 의견, 느낌, 지식을 직접 인용하여 독신으로의 유인 요인을 살펴

볼 것이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법적인 혼인 경험이 없는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결혼의 경험이 독신을 유인하는 이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자녀 혹은 전배우자의 영향에 대한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둘째, 35~45세의 독신 남녀를 선정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을 고려할 때 결혼적령기가 지난 연령으로,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이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확고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감정 등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연령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인생의 발달주기단계와 그 발달과업이 유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직업이나 학력, 소득에 대해 제한 없이 선정하였다. 이는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지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삶의 방식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 하나의 객체로서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독신남녀를 개인적인 친분과 소개를 통한 스노우 볼(snow ball)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강릉과 경기,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로로 남자 8명, 여자 8명으로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1차와 2차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면접은 2003년 4월 중순에 시행되었으며, 2차 면접은 1차 면접의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한 후 2003년 7월 초부터 시작하여 10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면접방법

연구 방법은 심층면접을 적용하였으며 면접 장소

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면접 장소는 면접자가 직접 선택하였으며, 면접자 중 7명은 근무하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4명은 근무처의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또 1명은 근무처의 건물 내 공원, 2명은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점에서 실시하였으며, 2명은 면접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방법은 2명을 제외한 14명을 1:1로 면접하였으며, 면접 과정을 녹음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녹음은 대상자의 응답을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보존해줌으로써 조사자의 회상이나 요약기록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Morse, 1991: 성정현, 1998에서 재인용).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특징적인 사항들은 면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따로 메모를 해두었다. 녹음된 면접내용은 그대로 필사본으로 만들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 해당되는 녹음된 내용을 전부 필사한 후 수차례 걸쳐 정독하면서, 각각의 주제들을 오른쪽에 메모해 두었다. 그 다음에 다시 자료들을 정독하면서, 사례별로 개념과 페이지를 목록화하였다. 그 목록들로부터 약 42개의 주제들을 발견하였으며, 개념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기준으로 그 주제들 중에서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에 6개의 주제들과 독신남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독신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을 결혼이 아닌 독신으로 유인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남녀 각각 8명씩, 총 16명의 연구대상자들과 심층면접을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징

| 면접자 | 성별 | 나이 | 학 력 | 직 업 | 소득(만원) | 출생순위 | 부모나이 | 주거형태 | 종 교 |
|-------|----|----|-------|--------|--------|-----------|-----------|-----------------|-----|
| 사례(A) | 여 | 37 | 대학원 재 | 연구원 | 연2천 | 2남1녀 중 장녀 | 부:68 | 부와 동거 | 無 |
| 사례(B) | 여 | 38 | 대 졸 | 프리랜서 | 연1천 | 2남2녀 중 막내 | 부:72 모:68 | 부모와 동거 | 기독교 |
| 사례(C) | 여 | 44 | 대학원 재 | 자영업 | 연1억2천 | 2남2녀 중 장녀 | 부:78 모:69 | 부모와 동거 | 無 |
| 사례(D) | 여 | 38 | 대 졸 | 프리랜서 | 연1천2백 | 1남3녀 중 차녀 | 부:67 모:64 | 독 거 | 無 |
| 사례(E) | 여 | 37 | 대학원 졸 | 교수 | 연3천5백 | 1남2녀 중 둘째 | 부:62 모:61 | 부모와 동거 | 기독교 |
| 사례(F) | 여 | 44 | 대학원 졸 | 대학 강사 | 연8백 | 1남3녀 중 둘째 | 부:76 모:71 | 독 거 | 기독교 |
| 사례(G) | 여 | 41 | 대 졸 | 회사원 | 연4천 | 2남2녀 중 막내 | 부:72 모:73 | 독 거 | 無 |
| 사례(H) | 여 | 40 | 대 졸 | 파트 타이머 | 연1천2백 | 1남1녀 중 둘째 | 모:70 | 모, 오빠 가족과 동거 | 기독교 |
| 사례(I) | 남 | 36 | 대학원 졸 | 연구원 | 연2천5백 | 1남2녀 중 둘째 | 부:70 모:63 | 여동생과 동거 | 천주교 |
| 사례(J) | 남 | 36 | 대 졸 | 서비스업 | 연6천 | 3남1녀 중 장남 | 부:63 모:63 | 독 거 | 기독교 |
| 사례(K) | 남 | 35 | 대학원 졸 | 공무원 | 연2천 | 3남1녀 중 넷째 | 부:70 모:62 | 부모와 동거 | 기독교 |
| 사례(L) | 남 | 35 | 대 졸 | 회계사 | 연4천 | 1남2녀 중 장남 | 부:62 모:62 | 독 거 | 無 |
| 사례(M) | 남 | 35 | 대 졸 | 회사원 | 연5천 | 무녀독남 | 모:63 | 모와 동거 | 無 |
| 사례(N) | 남 | 38 | 전문대 졸 | 회사원 | 연3천 | 3남1녀 중 둘째 | 부:71 모:63 | 부모와 동거 | 無 |
| 사례(O) | 남 | 37 | 대 졸 | 교직원 | 연2천8백 | 2남1녀 중 셋째 | 부:70 모:65 | 독 거 | 기독교 |
| 사례(P) | 남 | 37 | 대 졸 | 교직원 | 연3천 | 2남1녀 중 장남 | 부:67 모:63 | 부모와 동거 | 기독교 |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보면 남자 평균 연령은 36.1세이며, 여자 평균 연령은 39.9세로 전체 평균 연령은 38세이다. 여성독신들보다 남성독신들의 연령이 낮았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인 독신의 인구에서 여성들의 독신 연령이 높음을 시사한다.

2. 독신으로의 동기 요인

1) 개인적 요인

출생순위에 따른 영향으로 장남이나 장녀는 장자녀로서의 책임감이 결혼보다 독신으로 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막내나 둘째인 경우는 자아의식과 성취욕의 강한 자아실현 욕구로 인해 결혼보다 독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albo와 Polit(1987)는 외동이나 장남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양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게 되고 또한 자녀에게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Hurlock(1972)은 장자녀는 부모 대역으로써 부모를 돕고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인의 역할을 일찍이 모방하게 된다고 보고한다(김순희, 2000).

장남으로써 책임감은 굉장히 강하죠. 저도 강한 편이에요. 느끼는거는 어떨때는 부담스러울때도 있고, 제가 1남2녀중에 장남이다보니까, 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래도 어머니가 내가 해달라는 것은 많이 해주시고... 지내면서는 동생들에 대해서도 오빠가 내가 실질적인 가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경제생활을 잘 못하시니까 그 후로는 내가 실제적인 가장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사례 L).

장녀 역시 집안의 살림 밑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으며, 또한 부모님의 남다른 보살핌이 있었다. 그러한 보살핌에 대한 보답을 이제는 본인인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부모님 병원비요 제가 장녀다 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버지는 공무원 이셨으니까 아주 열심히 사시는 그런분이셨고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빛을 내서라고 시켜 주셨고... 끝나면 해야지 뭐 하

나 이룬 게 없어... 그랬는데 동생이 이혼하니까 조카 둘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대 왜 부모님을 형제들을 챙겨야 되냐면 그때는 철이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학 보내줄 여유가 없었어요 몰랐는데 돈을 다 준비해주셨는데 그게 다 빚이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에 나를 공부할 시켜주셨기 때문에 난 나를 할 수 있는대까지 하는게 내 도리더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C).

연구대상들의 연령은 35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이다. 이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며, 같은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사회의 효의 개념과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받은 시기가 바로 1970년에서 1980년 사이로 보여진다. 더욱 장남은 처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가부장적 가르침을 받으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 딸 역시 가정을 책임져주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이와 같이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이 장자녀로서의 책임감일 경우에는 비자발적-안정적 독신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독신을 선택한 것이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책임감에 가치기준을 두고 삶을 살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을 '어느 일정 기간 내에 결혼을 하기 원하며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들은 현재 독신생활을 받아들이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여진다.

차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장자녀를 양육해 본 사전 경험에 의해 좀더 객관적이 되며 보다 일관성 있고 덜 불안하게 다룬다. 간혹 부모가 장자와 같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거부적인 때도 있지만 그들의 문제에 대한 반응을 덜 보임으로써 자녀가 개성적으로 성장한다(엄경아, 1992; 김순희, 2000 재인용). Adler(1956)는 차자녀가 장자녀의 빛에 가리는 문제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차자녀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위치라고 믿었다. 차자녀는 장자녀처럼 많은 것을 요구 당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성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생순위에서 둘째들은 부모에게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부모들은 장자녀에 비해 차자녀에게 덜 구속하거나, 기대치가 적다. 반면에 차자녀들의 인식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차자녀는 중간에 끼인 존재로 항상 장남·장녀의 순위에 밀리고, 막내의 어리광에 밀려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생존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한 심리적 성향에서 둘째들은 오히려 장남·장녀에 비해 어른스럽다. 또한 말은바 책임도 강하며, 욕심도 많다. 본 연구에서 차자녀들의 자아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환경적으로 위에 오빠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오빠니까 또 남자니까 네가 항상 떠받들고 챙겨주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커가지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면서 컸어요... 누구 교수부인 이것보다는 내가 교수가 되고 싶었고, 아무튼 내가 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고...(사례 E).

차자녀의 경우 장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게 된다. 부모의 기대가 장자녀에게 큰 것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되므로 부모에게 인정받게 된다. 또한 장자녀가 아들이고 차자녀가 딸인 경우는 더욱 큰 경쟁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의 잔재로 보여진다. 아들 위주의 가족생활이 딸에게는 상처를 주며, 더 나아가서는 남녀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1)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과 역할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보다는 자신의 일을 가지라고 훈육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후회에서 오는 대리만족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알 수 있으며, 남녀 관계에 대한 바르지 못한 관념들에 대한 훈육은 왜곡된 생각으로 이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경우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딸들에게도 똑같이 동등하게 했던 것 같아요.(중략) 우리 어머니 자신이 굉장히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싶어했는데 못 하신 분 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주입시킨거는 너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거를 전제하고 들어갔어요(사례 F).

어린시절의 가정은 성장 후 결혼과 관계가 있다. 가정의 분위기가 민주적이며, 지지적인 경우에 독신을 선택할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Spreitzer & Riley, 1974). 이는 남녀의 차이가 있으나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지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과 독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신의 유형은 비자발적-안정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기대감에 의한 양육의 영향으로 비자발적 독신이 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이들 또한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부모의 영향에 의해 독신으로 생활하지만 그것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2)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청소년기의 경험은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좌절을 맞보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형성되는 가치관은 좌절의 경험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다음은 그들이 청소년기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을 현재 성인이 되었을 때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게 결혼보다는 경제적인 독립이 우선시되거나 목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렸을때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도 많고 근대 그런게 충족이 못되었죠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죠... 상당히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때에... 능력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애는 낳지 말아야 겠다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이죠. 요즘 뭐 요즘 같은 경제구조에서 상위층 하위층 양분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상위층으로 올라간다고 건 쉽지 않은 일이죠(사례 M).

이러한 경우는 자신들의 좌절의 기억을 대불립하고 싶지 않다는데 공통점을 가진다.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좌

절을 맞보지 않게 하기 위해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그런면도 없잖아 있고, 물론 결혼은 할수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맨날 티격태격 할 바에는 아예 안하고 편하게 있는게 낫지. 굳이 내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식이...(사례 K).

어린시절의 경험은 인간의 뇌에 각인된다. 특히 어린 시절 동안에 열악한 가족생활 환경을 경험한 여성은 남성의 경우보다 더 독신으로 남는다(Macklin, 1980). 따라서 성인이 된 후 독신에 대한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결혼의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유형은 비자발적-일시적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전에는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현재는 결혼할 의사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목표한 안정적 궤도까지는 결혼은 보류한 상태이다. 이들의 가치기준은 경제적 안정이 1순위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2) 사회 및 환경적 요인

(1) 일에 대한 투자의 성취감

독신의 상징은 '자유로움'이다. 독신의 자유로움의 1위는 일에 대한 열정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돌봐야하는 이중역할이 없다는 것을 커다란 장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시간이 아닌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또는 시댁의 제사사라든지 그런 일... 여러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뭔가 변명을 대고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사람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게... 저하고 봤을때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인거죠. 저는 뭐 내가 10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밥을 꿀딱 세우고... 저는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데 굉장히 행복하고...(사례 G).

일단은 뭐 퇴근시간에 구애 안 받잖아요. 그게 좋

죠... 뭐 결혼해도 대부분 여기도 결혼하신 교수님들 보면 2-3시 수업 끝나면 칼같이 집에 가잖아요. 저야 뭐 새벽 3시도 좋고...(사례 E).

미혼 독신자의 일에 대한 만족은 남성 독신자보다 여성 독신자들이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독신생활이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미혼 독신자의 자유로운 활동성과 이동성으로 해서 그들의 직업에 전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경력에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자리로 승진하는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옥귀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일·직업에의 몰두를 만족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Rollins(1986)도 미혼 독신자의 만족감의 원천이 자신의 직업에 몰두, 친구들과의 친교생활, 취미생활, 및 자신의 자유 순이라고 보고하였으며, Stein(1981)도 직업이 전문적일수록 일과 직업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서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미혼 독신자는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자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에 많은 투자를 하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발적-안정적인 독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생활의 편리함

독신의 자유로움의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과 혼자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것이나 모두가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가정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좋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간 날때마다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소는 아줌마가 와서 해주고 세탁은 다 세탁소에 맞기고, 식사는 제가 해먹는게 아니구요 나가서 세끼 다 사먹고... 네 그렇다고 심심하다 이런것도 없구요 막 일에 파묻혀 살다보니까 결혼이 없어요... 요즘 통장에 돈넣어 놓고 이려고 있으면 되니까 텔레뱅킹 이런거 자동이체 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요즘 나오는거 다 자동으로 빠지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저는 안하는게 편한거 같아요 주위에서 봐도... 혼자 사는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례 J).

미혼 독신자들은 가족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 인생만을 책임지면 된다. 그리하여 그 에너지를 자신의 건강, 취미와 여가 활동이나 자신의 일, 즉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돌릴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며 열정적으로 살 수 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즐기며 살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이 주어져 직업적 성공과 자아개발을 이룰 수 있다(옥귀주, 1999).

자기 개발이라는게 뭐 반드시 눈에 보이는 발전뿐만 아니라 저는 휴식도 자기개발이라고 보거든요.(중략)사내씨클로는 레포츄씨클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즌별로 봄에는 승마, 여름에는 수상스키, 윈드서핑, 가을에는 패러글라이딩 겨울에는 스키 이런 시즌별로 많이 바쁘죠. 옹기종기라고 하는 먹거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하하...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네... 피식가들의 모임인데요.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걸 먹는게 아니라 맛있는집을 찾아서 거기에서 목적을 두고 가는길에 여행을 하는거예요 (사례 G).

미혼 독신자의 자유로운 활동성과 이동성으로 그들의 직업에 전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경력에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자리로 승진하는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은 필수적이며, 일을 통해 사회적인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 일을 함으로써 풍족한 인생을 구하겠다는 인생관에서 일은 자신의 성취감과 연결된다. 즉 미혼 독신자들의 자신이 종사하는 일에 당당한 직업인으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에 대한 만족감,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일원으로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안정적 유형이다. 이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으며, 현재의 삶이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기혼자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3. 독신의 남녀 차이

미혼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독신 남성보다 독신 여성이 더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였으며(Campbell, 1975; Lasswell, 1987, 재인용), 독신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자존감도 높고 우울과 근심의 경험이 적고, 심각한 신경증세도 덜 경험하지만, 독신 남성은 기혼자에 비해 행복감과 만족수준이 낮다고 하였다(Bernard, 1975). 그리고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미성숙하고 이기적이며 부정적 경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Jorgensen, 1986)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남녀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개인적인 요인에서의 차이와 만족·불만족 요인에 대한 차이로 나누어보았다.

1) 개인적 요인의 차이

본 연구에서 독신 남녀의 소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독신 여성의 경우 연봉 2천 만원이하가 5명이며, 독신 남성의 경우 연봉 3천 만원 이상의 경우가 5명이었다. 이는 독신 여성의 경우 독신 남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옥귀주(199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면접 대상자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소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이지만, 독신생활의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학력에서도 남녀 차이를 보였다. 독신 여성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이 4명이며, 독신 남성의 경우 2명이다. Jorgensen(1986)에 의하면 독신여성이 교육, 직업면에서 독신남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였으며, Bell(1983)은 평균적으로 교육수준, 직업수준, 계층 상승을 통한 성공의 욕구, 독립의 측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 직업에서의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독신 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노동력이 뛰어나지만 남성

의 경우는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독신 남성에 비해 독신 여성의 경우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독신 남성에 비해 독신 여성이 출생 순위가 둘째인 경우가 많았다. 독신 남성은 2명이며, 독신 여성은 4명이었다. 이는 엄경아(1992), 김순희(2000)가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차차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장자녀를 양육해 본 사전 경험에 의해 좀더 객관적이 되며 보다 일관성 있고 덜 불안하게 다룬다. 간혹 부모가 장자와 같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거부적인 태도 있지만 그들의 문제에 대한 반응을 덜 보임으로써 자녀가 개성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차차녀의 특성을 살펴볼 때, 독신 남성보다 독신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과 독신 여성의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가 더 많은 것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성적이며, 자아 의식이 강한 차차녀의 특성상 현재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비자발적 유형보다 자발적 유형의 경우 독신통기의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으며(옥귀주, 1999), 이는 독신통기의 만족도와 출생순위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에 대해서도 남녀 차이를 보였다. 독신 남성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7명은 기회가 된다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현재는 독신이 좋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독신 남성보다 독신 여성의 경우 현재 독신으로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결혼을 하게 되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반면, 현재는 독신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일에 대한 성취감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일에 대한 투자의 성취감에 대한 만

족도는 독신 남성보다 독신통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옥귀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과 직업에 따라 일·직업에 몰두를 만족요인으로 선택하는 차이가 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일·직업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독신통의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독신통의 학력이 높은 수준이며, 직업도 전문적인 것을 볼 때 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독신통의 만족요인이라고 대답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결혼함으로써 얻는 일상생활의 자유로움이 남성보다 줄어들기 때문(옥선화, 1996)에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독신 남성보다 독신통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여성 독신통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 독신통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도가 기혼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여성 독신통자는 독신통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과 남성 독신통자에게는 모욕적이거나 무시하는 용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없는 반면에 여성 독신통자에 대한 편견은 용어에서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신통 여성들은 독신 남성들에 비해 기혼자와 달리 가볍게 대하는 태도나 언어에서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남성 독신통들보다 여성 독신통들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는 것은 사회전반적인 남녀 불평등이 독신통 남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이하거나 부족한 사람, 혹은 가볍게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한 인간으로 비쳐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독신통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3) 독신통 유형과 결혼관에 대한 차이

본 연구에 독신통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남성 독신통들에 비해 여성 독신통들의 경우 자발적-안정적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독신통의 경우 자발적-안정적 독신통의 유형은 1명의 사례(사례 J)였다. 반면에 7명

의 사례는 비자발적-일시적 독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현재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이 학업·경제적인 이유와 장남으로서 책임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명은 현재 교제중인 이성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발적-안정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 역시 직업적으로 결혼보다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여성 독신들의 경우 2명의 사례가 비자발적-일시적 독신 유형에 해당하며, 다른 6명의 사례는 비자발적-안정적 독신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이 부모나 환경, 장녀로서의 책임감, 일에 대한 성취욕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경우 자신들이 인지하는 것은 비자발적이라기 보다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부모나 환경, 장녀로서의 책임감, 일에 대한 성취욕이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 기준으로 현재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신을 위한 개발에 더 노력하면서 성취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결혼관에 대해 남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 중 남성 독신자 7명은 적당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되도록 빨리 결혼하기를 바랐으며, 1명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여성독신자들은 현재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그때가 되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다양화 현상에서 늘어난 독신가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독신 가구를 이루는 것은 노인가구와 이혼한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고자 한 것은 독신생활의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서 보다 나은 독신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35세 이상 45세 이하의 독신 여성 8명과 독신 남성 8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독신생활의 동기 요인을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들의 독신생활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차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독신생활 동기의 개인적 요인은 첫째, 출생순위에 따른 가치기준이다. 장자녀는 부모자 형제·자매에 대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갖는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장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고 성장하며, 동생들보다 먼저 배우고, 먼저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이 성인이 되면서 동생들에게 부모를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면서 부모가 했던 희생을 동생들에게 물려주게 되며, 나이든 부모에 대한 부양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장자녀와 달리 차자녀들의 경우 개성이 강하며, 자아의식도 뚜렷하다. 장자녀에 비해 사랑을 덜 받고, 기대도 덜 받았던 차자녀들은 자신들의 자아의식을 강하게 가지며 오히려 장자녀보다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표를 갖게 한다. 목표를 향해 추진력과 성취감을 얻으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출생순위에 따른 배경 요인으로 인하여 결혼을 선택하기보다 독신으로 남은 경우이다. 장자녀로서 책임감과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독신인 경우는 비자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차자녀의 강한 자아의식을 통해 성취욕 때문에 독신으로 남은 경우는 자발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이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대감은 특유한 우리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다른 문화권보다도 우리 문화는 자녀를 부모의 과거 모습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자

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키우기보다 부모가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영향이 자연스럽게 결혼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성에 대한 불신감을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남녀의 관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게 된다.

이와 같은 부모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기대를 낮아지게 하며,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하도록 하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의 극복이다. 이들은 어린시절 이루고 싶었던, 혹은 해 보거나 가지고 싶었던 것에 대한 좌절을 맛보았다. 그러한 동기로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 획득과 안정의 욕구를 갖게 된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에게 좌절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은 욕구도 함께 갖는다. 이러한 경우는 가치 우선순위가 현재 직업이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혼은 이차적인 문제로 미루게 되므로 현재 독신으로 남아있는 경우이다.

독신생활 동기의 사회 및 환경적 요인으로는 첫째, 일에 대한 투자의 성취감이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족의 부양이나 자녀 양육, 가사노동으로 인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되면,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이들은 결혼보다 독신으로 살면서 일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현재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독신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둘째, 생활의 편리함을 들 수 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생활의 불편함이 없으므로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어 살고 싶어한다.

독신의 최대 장점은 자유로움이다. 연구 결과 자유로움에 대한 인식은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다. 자신의 삶이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일에 원한다면 24시간을 모두 투자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독신생활에 만족하며, 다른 비슷한 조건을 가진 기혼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독신생활의 남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소득의 차이이다. 독신 여성의 경우 연봉 2천 만원이하가 5명이며, 독신 남성의 경우 연봉 3천 만원 이상의 경우가 5명이었다. 이는 독신 여성의 경우 독신 남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학력의 차이이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학력에서도 남녀 차이를 보였다. 독신 여성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이 4명이며, 독신 남성의 경우 2명이다. 독신여성의 교육정도는 독신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생순위의 차이이다. 본 연구결과 독신 남성에 비해 독신 여성이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가 많았다. 독신 남성은 2명이며, 독신 여성은 4명이었다. 자아의식이 강한 둘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자아의식이 강할 때 독신으로 남을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넷째, 일에 대한 성취감의 만족도에 남녀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독신 남성보다 독신여성의 경우 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아직도 여성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남성 독신에 비해 여성 독신들의 경우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독신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도가 기혼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여성 독신자는 독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과 독신자에게는 모욕적이거나 무시하는 용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없는 반면에 여성 독신자에 대한 편견은 용어에서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독신 유형의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독신의 경우 비자발적-일시적 유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 독신의 경우 비자발적-안정적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 독신들의 경우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현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독신생활의 남녀 차이를 볼 때 남성 독신의 경우 소득이 여성독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여성 독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학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노동력의 재평가를 요구하게 한다.

결혼에 대하여 남성 독신들은 여성 독신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기회가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답하는 반면, 여성 독신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존의 결혼생활에서 구분되는 성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편견의 인식 정도의 독신 남녀의 차이를 볼 때, 남성들에 비해 여성 독신자들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신에 대한 편견에 앞서 남녀를 다르게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과 인식변화 교육이 필요하며, 나아가 독신이라는 것을 삶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독신생활의 동기요인은 출생순위에 따른 가치기준과 부모의 영향, 출생가족에서의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결혼보다

독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대한 성취감과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편리한 사회적 요인도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독신생활에서의 남녀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성 독신들에 비해 남성 독신들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신 남성들에 비해 독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의식이 강한 특성을 가진 차차녀의 비율도 여성 독신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의식의 남녀 차이도 나타났는데, 남성 독신들의 경우 대부분 되도록 빠른 시일에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여성 독신들의 경우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이를 먹은 뒤에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신생활의 만족도에서도 남녀 차이를 보였다. 남성 독신들에 비해 여성 독신들의 경우 일에 대한 투자의 성취감이 독신생활 만족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면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은 남성 독신들에 비해 여성 독신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여성, 독신자에 대한 사회복지, 대출, 승진, 등) 독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와 편견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막고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신이 불완전하다거나 독신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을 없애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사회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독신생활의 개인적인 동기요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혹은 기대감은 독신으로 이르는 결정을 하는데 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갖는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녀에게 일에서의 성취를 강조하고 이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올바른 자녀 기르기', '자녀와의 대화' 등의 양육, 교육적인 면을 강조함과 함께, 부모 자신이 자녀들을 자신의 부속품이나 소유물로 보지 않고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는 면을 좀 더 강조하는 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결혼하기 전에 '건강한 부부생활 만들기'와 '건강한 부모되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급증하는 이혼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치관 확립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교육 실정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기 시절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번도 시도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독신생활의 경험에서 여성독신자들이 남성독신자들보다 더 많이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독신에 대한 편견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더하여진 결과로 사회적인 인식의 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자와 여자를 같은 인격체로 보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 개개의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의 전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의 양성평등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인식은 아직도 보수적인 성향이 짙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직장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성

역할 재구성'과 상담기법을 통한 '자신 들여다보기'와 '선택 이론' 등을 통한 인식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필수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여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강유진(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경험과 노년기 적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2002).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73-184.
- 김순희(2000). 유아의 출생순위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와 교육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2001). 독신, 그 멋과 매력. 도서출판 보람문화사.
- 김용재(1996). 독신성인의 유형에 따른 교육적 필요에 대한 조사연구. 浸禮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외(1996). 결혼과 가족. 서울: 학지사.
- 김진희, 박정윤(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7-31.
- 김태현, 이문숙(2002).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태현, 전길양, 김양호(2002). 사회변화와 결혼.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동아일보. 2000년 8월 23일자.
- 동아일보. 2003년 10월 31일자.
- 류호진(2000). 현 사회의 독신을 증가추세에 따른 교회 교육적 대응방안 모색. 고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일보. 2003년 5월 2일자.
-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63-171.
- 성정현(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태수(1996). 성(性), 거품을 건어라 7: 유럽의 시각/독신의 자유의 진실- "자극적이지만 불안하고 독립적이지만 외롭다". 월간 사회평론길, 96(12), 84-87.
- 신옥순 역(1996). 교육 연구의 새 접근-질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 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여성한국사학회(1995). 한국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옥귀주(1999). 미혼독신자의 생활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윤영효(1994). 시집 안 간 여자, 시집 못 간 여자. 서울: 삼진기획.
- 윤오복(1996). 우리 결혼하니 참 좋다. 책세상.
- 이재희(2001).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2000). 미혼독신세대의 실태와 전망. 목포대 여성연구, 8, 125-143.
-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 전옥실(2000).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은(2001). 미혼여성의 건강위험행위 예측모형.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은(2002).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19-227.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2000). 인간발달. 교문사. 조선일보, 1997년 11월 11일자, 2000년 12월 28일자.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주간동아(2003). 일 그리고 자유... "난 혼자이고 싶다". 주간동아 제395호.
- 중앙일보, 1998년 7월 2일자.
- 최신덕(1983). 결혼과 가족 4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2003). 연령·성별·혼인상태별 인구 조사표.
- 통계청(2003).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1인가구).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30일자.
- 한국일보, 2001년 7월 5일자.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 Anderson, Carol M., & Stewart, Susan (1994). *Flying Solo: Woman in Midlife*. N.Y.: W.W. Norton Company.
- Austrom, D., & Hanel, K. (1985). Psychological issues of single life in Canada: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 12-23.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l, Robert R. (1983). *Marriages and Family Interaction*. sixth Edition. Illinois: The Dorsey Press.
- Bernard, J. (1982). *The Future of Marriage*. Yale.
- Caplan, Paula J. (1985). Single Life and Marriag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 6-12.
- Cargan, Leonard (1981). Single: An Examination of Two Stereotypes. *Family Relations*, July, 380-385.
- Coomb, R. H.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well-be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40(1), 97-102.
- Davies, Lorraine (1995). A Closer Look at Gender and Distress among the never-married. *Family Women & Health*, 23, 13-20.
- Elmer, Spreitzer, & Riley, L. E. (1974). Factors Associated with Singlehood. *Journal of Marriages and the Family*, 533-542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albo, & Polit, (1987).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Jorgensen, Stephen R. (1986). To Julie and the boys, chapter 6, *The Never Married*. 113-134. N. 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Jung, C. G. (1933).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Keith, Pat M. (1986). Isolation of the Unmarried in Later Life. *Family Relations*, July, 35(3), 389-395.
- Kirmelman, Marilyn I. (1985). *The Adult Years in the life cycle of never Married Professional Women*. 147-166.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Temple University Graduate Board.
- Lasswell, M., & Lasswell, T. (1987). *Marriages and Families*. second Edition.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11-141.
- Marshall, C., & Rossman, G.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
- Rice, F. P. (1990).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s and Families*. Mayfield Pub. Do.
- Rollins, Judy (1986). Single Men and Women :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Family Perspective*, 20, 117-124.
- Sherman, E. L., & Reid, W. J. (1994).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tein, P. J. (1981). *Sing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N.Y: St. Martin's Press.
- Stein, P. J. (1988).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In Wells, J. G.(ed.),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4th ed., 19-30), Macmillan.
- Tucker, R. K. (1992). *Men's and women's ranking of thirteen acts of romance*, *Psychology Reports*, 71, 640-642.
- Wood, Britton (1977). *Single Adults want to Be The Church Too*. Nashville: Broadman. 39-84.

(2004년 10월 29일 접수, 2005년 3월 23일 채택)